

9.4兆 인니 IT시장 공략...합작법인 'LG 시나르마스' 출범

등록 2024.09.11 12:20:40



LG CNS 현신균 대표(왼쪽 세번째)와 시나르마스 프랭키 우스만 위자야 회장(왼쪽 네번째)이 LG 시나르마스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LG CN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DX(디지털전환) 전문기업 LG CNS가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그랜드 하얏트 자카르타에서 시나르마스(Sinarmas) 그룹과의 합작법인 'LG 시나르마스 테크놀로지 솔루션(LG 시나르마스)'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LG CNS 현신균 대표와 시나르마스의 프랭키 우스만 위자야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G CNS와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그룹은 지난 3월 27일 서울에서 합작법인 'LG 시나르마스'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출범식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LG 시나르마스'의 공식출범을 알리고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를 발표하는 자리다.

'LG 시나르마스'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LG CNS에서 인도네시아 법인장과 중국법인장을 거친 한동협 법인장이 대표직을 맡았다.

'LG 시나르마스'는 이번 출범식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혁신 IT 서비스 기업'이라는 슬로건과 로드맵을 공표했다. 'LG 시나르마스'는 LG CNS와 시나르마스 그룹 각각의 강점을 접목해 최첨단 데이터센터 컨설팅·구축·운영과 클라우드 전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G 시나르마스'는 주요 사업영역을 스마트시티와 금융 IT 서비스까지 점진적으로 확장해 폭넓은 DX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컨설팅펌 가트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IT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약 9조 4000억원의 시장 가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LG CNS는 국내외 IT 솔루션 시장에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DX 사업을 수행하며 DX 노하우를 쌓아왔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누산타라 신수도청 스마트시티 설계 컨설팅 사업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 사업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 설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시나르마스 그룹은 ▲에너지/인프라 ▲통신/기술 ▲금융 ▲부동산 ▲펄프/제지 ▲농업/식품 ▲헬스케어 등 7개 산업 분야에서 사업 전문성과 현지 네트워크를 축적해온 인도네시아 최대 그룹 중 하나다.

현신균 LG CNS 대표는 “LG 시나르마스는 LG CNS와 시나르마스 그룹이 가진 강점과 시너지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DX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고객에게 차별적인 IT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